



2022년 7월 31일(제1099호) 연중 제18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본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가난과 부”

복음서를 살펴보다 보면 가난한 이들은 행복을 보장받고, 부자들은 불행하거나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로 비추어집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진복팔단에서도 가난한 이들은 행복을 보장받지만, 부자들은 곳곳에서 그분으로부터 멀어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현세에서 가난한 이들은 훗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고, 부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인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실 하느님 앞에서 가난과 부의 차이는 그리 중요치 않을 것입니다. 가난과 부의 용어부터 다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만 해서 하늘 나라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은 부자이기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보편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하느님 사랑과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과 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서 볼 수 있듯이, 돈 몇 푼이라도 하느님을 위해 가진 것을 모두 봉헌할 수 있다면, 또 나에게 수억 수천억의 재화가 있더라도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모두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지닌 이들이 진정한 가난한 자들이며 하느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 그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다만 많은 것을 지닌 이들이 그만큼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에 더욱 어렵다는 것을 복음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돈이 최고라는 물질 숭배의 분위기가 오랜 시간 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화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도구적 가치이며 수단인 돈이 그 가치와 목적을 잃은 채 변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당연히 돈이 필요 합니다. 사실상 돈이 제일 우선적 가치입니다. 달리 말하면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실제로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 치료받지 못해 죽는 사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 슬프게도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복음의 기쁨’에서 “나이 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하며 인간 생명의 가치가 경시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빈부 격차와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거나 가난한 사람이 아니니 상관없는 일이라고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가진 바를,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하느님과 이웃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니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는 그분의 말씀과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묵상해보는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장진환(프란치스코) 신부  
소성(제17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특 시

코헬 1,2; 2,21-23

회 답 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제 2 특 시

콜로 3,1-5.9-11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 음

루카 12,13-21

영 성 제 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두 번째 시

끝으로 특별한 인연으로 굳게 결합되어 있는 경애하올 스승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을 통하여 간청하오니, 이 소자를 잠시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전번 서한에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십자가 나무 한 조각을 청한 일이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그것을 장만하신다면 틀림없이 저에게 보내주실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올 스승님께, 지극히 순종하고 부당하며 미약한 조선인 아들 최 토마스가 엎드려 절합니다.

세 번째 시

예수 마리아 요셉,  
심양에서, 1846년 12월 22일

지극히 공경하고 경애하올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벌써 오래 전부터 큰 희망을 품고 신부님의 회답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지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바심 없이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듯이 큰 염려와 자애로 아버지의 정을 저에게 베푸시는 신부님께 편지까지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황송한 일이고, 또한 신부님께서서는 언제나 지극히 많은 일로 너무 바쁘시다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12월 21일에 신부님의 서한과 거룩한 유해를 받고 더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우리 포교지 밖에서 떠돌고 있으니 저도 매우 답답하고, 신부님의 마음도 괴로우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겨우 저의 동포들한테로 가는 도중입니다.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저로 하여금 저의 신부님들과 형제들을 반가이 만나 포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다음 주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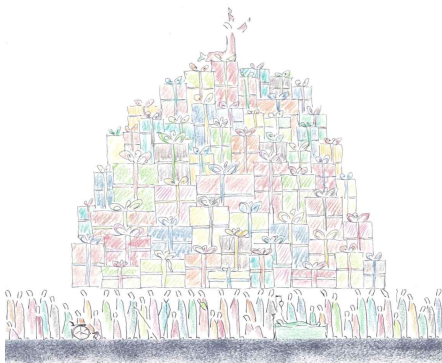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인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선물 위에서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조르기만 했습니다.	청하기만 했습니다.  선물 위에 올라, 감사할 줄 모르고, 나눌 생각도 없이.
마치, 받은 것 하나 없다는 듯,	



# 8월 상시긴 묵상글

복음 낭독: 루키 23,26-31

(이어서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래의 글을 낭독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키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합니다. 그의 성격과 희생 정신, 그에 따른 보상에서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의 이름 시몬은 ‘순종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순종은 무엇이 어떠한 모양으로 오든지 본인의 의지를 억제하고 굽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그리스도의 짐을 가볍게 하고 그분의 일꾼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시몬은 이방인이며, 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던 이였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이는 바른 방향과 거룩한 행동으로 천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수난하는 고귀한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을 얻지 못하며, 그분 어깨에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우리 어깨에 지는 행복을 얻지 못할까요?

시몬은 자신을 바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지고 가는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키레네 사람 시몬의 수고는 잠깐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교회에서는 그와 그의 아이들을 덕 있는 이들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잘 참아 지고 가는 사람은 수고가 빨리 끝나고 기억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음을 체험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무도 강제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의 맹렬한 반항이 무서운 십자가처럼 저를 찍어 누르는 것을 잘 보시니, 주님 은총으로 저를 건강하게 하시어, 제가 제 오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용감히 받아 지게 하소서.

출처 : 『상시긴』, 한국진주교주교회의, 2012, 155~156쪽 발췌

##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연중 제18주일: 오뚜기 상진호 신부

### ◆ 교구장 동정

- Knights of Columbus 연례모임  
 때·곳: 7월 31일(주일) ~ 8월 6일(토), 미국

### ◆ ‘군중의 시긴’ 인니

때: 주일 오전 8시 ~ 9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상제상시로 기뻐하는 삶” -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